

아이디어창출 및 인vention

바람의 박사기법 인vention

사례를 통해본 기법

아이스 크림을 탄생시킨 사람들

‘아이스 케이크!’

‘얼음 과자!’

뜨거운 여름, 사각통 하나를 메고 골목골목을 누비던 소년들이 외치던 소리이다.

이미 60~20여년 전의 모습이어서 어린이들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필자의 경우만해도 생생한 기억 중의 하나이다.

냉동기는 물론 냉장고조차 구경하기 힘들던 시절, 아이스 케이크의 인기를 능가하는 식품은 없었다.

요즘은 고급화되어 이름까지 예쁘게 바뀐 아이스 케이크, 크림.

이 신비의 음식은 어떻게 발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

일본의 발명가 다나카 기우에몽이 만년에 이웃 아이들을 모아 놓고 놀랍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아이스크림이다. 일본에서 최초의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깜짝 놀란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 아이스크림의 역사를 보면, 서기 62년 네로가 로마 검술대회를 축하하고자 선수들에게 먹이기 위해 산꼭대기까지 하인을 달리게 해서 눈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벌꿀을 냉각시켜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200년까지는 아이스크림의 기록이 없지만, 마르코폴로가 동양으로부터 비법을 가져다가 로마 법왕

에게 갖다 바친 것이 아이스크림이다. 그로부터 다시 1백년 후 영국의 찰스 1세가 요리사에게 만들게 했는데, 그 제조법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비로소 팔기 시작한 사람이 뉴욕의 가젯이다. 대통령인 워싱턴도 이 맛에 끌려 가끔 그곳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러갔다는 말도 있을 만큼 크게 번창했다. 오늘처럼 싸고 맛있는 것이 완성된 것은 1백년 가량 전에 낸시 존슨이 냉동기를 발명하고부터이다. 그리고 재료 속에 달걀을 넣거나 향료를 넣고 그 위에 초콜릿을 끼얹는 데까지 개량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이상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 일본의 후지야 제과가 다시 훌륭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것이 바로 소프트아이스크림이다. 후지야는 이것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그것은 아이스크림 속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작은 거품을 만들어 달콤한 미각을 낸 것이 특색이다.

우에조 히로지의 종이 집표

운송용 화물마다 어김없이 붙어있는 종이 집표.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이 쓰인 이 집표도 발명품으로, 전세계 화물에 사용되고 있다.

발명가는 일본인 우에조 히로지.

나가노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우에조가 도쿄에 출장을 오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생후 처음 도쿄를 찾은 우에조는 수도를 찾

는다는 설레임으로 흥분되어 있었다.

‘이번 출장에서 수도 곳곳을 살살이 살펴보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야겠어’

흥분 속에서도 마음가짐은 단단했다.

그 마음이 종이짐표를 발명하게 했을지도
몰랐다는 것이 훗날 우에조의 회고.

도쿄역에 내린 우에조의 눈에 가장 먼저 띄
인 것은 산처럼 쌓은 화물.

지방에서 수도인 도쿄로 불어오는 짐은 종
류도 다양했지만 양 또한 엄청났다.

그런데 화물들에는 하나같이 나무판자를 잘
라 만든 짐표가 붙어있었다.

나무판자짐표를 보는 순간 우에조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이상도 하다는 표정이었다.

‘저 많은 화물에 하나하나 나무판자짐표를
붙이려면 얼마나 힘들까. 종이짐표를 붙이면
될것을...’

도쿄에서의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우에조는 서둘러 종이짐표를 만들어 보았다.

우에조의 종이짐표는 두꺼운 종이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구멍을 뚫고 철사를 꿰어놓은 것
이 전부.

우에조는 서둘러 실용신안 출원을 마치고
화물회사를 찾아갔다. 권리를 팔기 위해서였
다.

‘편리하군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용신안등
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물회사 직원은 우에조를 비롯하며, 등록
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자리를 일어서
버렸다. 이같은 상황은 어느 화물회사에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년후 이 종이짐표가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자 입장이 바뀌었다.

‘컬럼부스의 달걀’같은 작은 아이디어였지
만 발명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사용이
가능했다.

워낙 값싼 물건이라 우에조는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먹고사는 문제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었다.

찰스의 지하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관찰과 착상능력 때문.

새의 비행능력, 박쥐의 레이더 능력, 거미
의 공학적 능력, 식물의 광합성 능력 등 자연
의 능력을 관찰한 발명품들이 인간의 만물의
영장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지하철도 자연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중의
하나.

수송의 역사상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영국인 찰스 피어슨. 찰스가 이 기
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두더지의 구멍
때문이었다.

‘모든 동물은 지상의 길로 다닌다. 그러나
두더지는...’

1843년 찰스는 런던시 의회에 세계 최초의
지하철도 시스템을 제안했다.

‘미친 사람’

런던시 의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
나 찰스는 지하철도의 중요성을 끈질기게 제
안했고, 10년 후 런던시 의회는 찰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도가 뚫린 곳은 파딩턴
의 패린턴과 비숍스를 잇는 6km. 우여곡절
끝에 1863년 개통식 행사가 성대하게 배풀어
졌다.

새까만 연기를 자욱이 뿜어내면서 석탄 연
료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메트로폴리탄 디스
트릭트 철도의 상업 운전이 개시되었다. 첫해
에 만도 9백50만명의 승객을 운송했다. 이어
서 1890년에는 런던에서 처음으로 전기구동
의 지하철이 생겨서 시내 어디에서나 2펜스면
탈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런던시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제
지하철은 도시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세계 각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세
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우아한 지하철은 모스
크바의 것인데, 역이 시원스럽게 넓고, 전체
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있다. 또 가장 정중한
역은 뮌헨, 가장 체계적으로 설계된 역은 도
쿄, 가장 난폭한 역은 뉴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하철 역은 어디에 해
당하는가? <王>